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하반기 수질환경보전회 열고 청정 농업용수 확보 총력

김도윤 기자 | 승인 2026.11.23 09:17

> 민·관 수질오염 저감 논의 및 불갑저수지 환경정화로 보전 의지 다져
> 정수용 지사장 "상류 오염원 제거·지속 모니터링으로 청정 농업용수 공급 최선 다할 것"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정수용)는 지난 19일 영광군 불갑저수지 일원에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수질환경보전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와 농업인,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주체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현장에 청정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영광지사가 추진 중인 주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실태와 불갑저수지를 비롯한 관내 농업용수 수질관리 현황이 상세히 공유됐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저수지 내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저감 대책과 유입 오염원 차단 방안을 두고 참석자들 간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행정기관의 관리만으로는 수질 보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 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간담회 종료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불갑저수지 주변으로 이동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저수지 수변과 인근 농로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농업용수 보전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영광지사는 이번 수질환경보전회에서 도출된 현장의 의견을 향후 용수 관리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수질 모니터링과 수질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해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수용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기초가 되는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저수지 상류 지역의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더불어 유관기관 및 지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을 통해 청정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윤 기자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